

휘발유값 급락 ... 광주·전남은 ‘짚뚱’ 인하

ℓ 당 1500원대 주유소 전국 200곳·지역엔 ‘0’ 시민들 “담합 의혹”에 업계 “영세업 많아서...”

광주 광산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모(49)씨는 최근 동네마다 저렴한 주유소를 알려주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픈넷(opinet.co.kr)에 부쩍 자주 접속한다. 조금이라도 값이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15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에는 아직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상했다.

7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가용 차량 운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이 지역 주유소업계가 전국적인 휘발유 가격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지역 주유소들이 가격 인상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큰 폭으로 올리더니, 내릴 때는 가격 하락 요인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짚뚱’ 인하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부터 이달 첫째주까지 5주간 전국의 휘발유가 인하 폭을 보면, 광주는 11월 첫째주 ℓ 당 평균 1728원에서 1688원으로 40원 내리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가는 1746원에서 1703원으로 43원 내렸으며, 경기 지역은 44원이나 떨어져 차이를 보였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도 41원 내렸다.

특히 국제유가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휘

발유를 ℓ 당 1500원대에 파는 주유소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200곳이 넘었지만 광주와 전남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 1500원대 판매 주유소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는 89곳까지 늘었으며 이어 경남 51곳, 대구 20곳, 경북 15곳, 울산 12곳 등이었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통상 광주 지역이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해 왔던 과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주유소 업계가 담합을 통해 가격 하락폭을 조절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갖는 상황이다. 한 운전자는 “휘발유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고 1500원대 판매 주유소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우리 지역의 하락폭은 더딘 것 같다”며 “주유소 업주들의 담합이 없다면 이렇게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1500원대를 내세우고 있는 주유소는 SK 에너지나 현대오일뱅크 등 대형주유소의 직영업소나 알뜰주유소들”이라며 “광주·전남의 경우 유류 공급 노선이 다르고,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이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광주전남지역 알뜰주유소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경쟁력을 잃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 주유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구매력이 낮아 가격 낮추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인근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조차 가격 동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 최초 수익형 호텔 ‘엠스테이 호텔 나주’ 분양



KTX 나주역 인근에 들어서는 호남 지역 최초 수익형 호텔 ‘엠스테이 호텔 나주(조감도)’가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2016년 완공되는 이 호텔은 호남권 최대인 객실 300실 규모로 건설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TX나주역 옆에 조성됨에 따라 운영 수익 뿐 아니라 향후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VIP서비스와 컨벤션센터 등 부대 시설,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과 첨단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투숙객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개성있는 12개 타입으로 나뉘어져 투자자들의 기호에 맞게 분양 받을 수 있다.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이 15분 거리며 호남고속도로 및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도 가까이 있어 최적

의 입지로 꼽힌다. 혁신도시 역시 5분거리에 있으며 나주산단, LG나주공장, 금천농공단지는 물론 나주시청, 한전과도 인접해 있어 수요창출에 문제가 없다.

엠스테이 호텔 나주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 내 상업지역에 숙박 시설이 여의치 않아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호남 지역 최조이자 최대 규모의 호텔 투자를 할 기회가 바로 엠스테이 호텔 나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은 ㈜코람코자산신탁이 맡고 있으며 엠스테이주식회사가 호텔 운영을 책임진다. 모델하우스는 광주지하철 상무역 2번 출구 앞에 있다. 문의 1899-542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

해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지난달 금호고속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금호고속 최대 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지난달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매각방해행위’를 이유로 해임하자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주주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지난달 19일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사모펀드 측은 “김 전 대표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추천 인사로, 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가치를 훼손시켰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표이사 해임권은 절차상 하자 및 주식매매계약(SPA) 위반사항으로 불법”이라고 반박해 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V-Party’ 미술품 경매

지난 6일 광주신세계 1층 컬처스퀘어에서 지역 젊은 작가들의 모임인 ‘아트 프로젝트 그룹 V’ 주최로 작품 전시, 공연, 경매 등이 어우러진 이색 문화 이벤트 ‘V-Party’가 열렸다. 이날 경매에는 강운, 김해성, 이이남 등 지역 유명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과 함께 참여작가의 작품 20여 점이 경매에 출품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아시아나항공 5년만에 경영정상화

산업은행, 자율협약 졸업 결의

아시아나항공이 5년 만에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 졸업 안전에 대해 8개 채권은행의 의견을 모은 결과 100% 동의를 얻어 졸업을 결의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산업·수출입·하나·국민·우리·광주·외환·신한 등 8개 은

행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63%)과 수출입은행(12.6%)의 채권액 비중이 가장 크다.

채권단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자율협약 개시 후 정상적인 외부자금 조달을 지속했으며 자력으로 영업 및 재무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자율협약 종료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또 아시아나항공이 도입이 집중되는 2015~2016년 자금소요를 감안

해 1조원 규모의 기존채권의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유동성 위기로 2009년 말 워크아웃(기업 개선행위)을 신청하면서 2010년 1월 시작됐다. 당시 2년 기한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나 졸업 여건을 달성하지 못해 1년씩 두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이 아시아나의 독자경영능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자율협약 졸업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농어촌공사-베트남, 농업 인프라 구축 협력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베트남 정부와 농업·농촌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사업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상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주석궁에서 쩡 쩌 상(Truong Tan Sang) 주석을 만나 베트남 현지 농업 관련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쩡 쩌 상 주석은 “농업 인프라와 수자



원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농촌개발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과 한국 농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지닌 농업 분야의 선진 기술을 베트남 현지와 접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아

이템을 발굴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627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2 9 22 25 31 45	1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52,230,650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4,391,936	35
3 5개 숫자일치	1,471,096	1,532
4 4개 숫자일치	50,000	74,824
5 3개 숫자일치	5,000	1,243,945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자 4억 포함, 보 1억에 월 340만원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20층중 12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원룸형 매매가 - 6,5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은, 20층중 13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7,0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은,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7,0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